한국 화단 빛낸 작가들과 제주에서 미술 산책

제주돌문화공원 내 누보
'한국미술의 거장' 기획전
천경자 백남준 등 20여 점
특강·공연·상영 등 연계
삶과 작품 세계 만남 기회

김기린의 '안과 밖'.

한국 화단을 이끌어 온 근현대 작가들을 조명하는 자리가 제주에서 마련되고 있다. 제주돌문화공원 안에 있는 누보(NOUVEAU, 대표 송정희)가 특별기획전으로 지난 1일 막을 올린 '한국미술의 거장'전이다.

6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추상 화가를 중심으로 한국미술사를 읽을 수 있도록 꾸몄다. 작고, 원로 작가를 망라해 그들의 작품을 직접 보고 그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으로 기획됐다.

전시 작품은 20여 점에 이른다. '꽃과 여인의 색채 화가'인 천경자의 초기 작품과 드로잉, 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의 프린트 미디어 작업, 청색과 회색 등 한국적 미감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권옥연의 파리 시절 초기작, 화가로 출발해 조각가로 이름을 떨친 문신의 조각과 드로잉, '천재 조각가'로 불리는 권진규의 테라코타 좌상, '설악산의 화가'인 김종학의 대형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박수근, 이중섭, 장욱진, 이우환, 김창열, 박서보, 이인성, 유영국, 이대원 등 '거장'들의 판화 작품도 놓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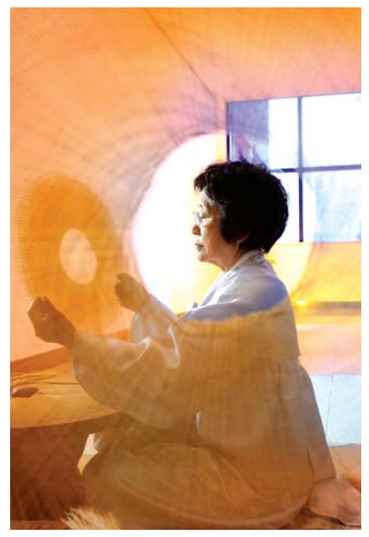
전시 기간에는 토요일마다 이들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살필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잇따른다. 돌문화공원을 산책하고 전시 작품 해설을 곁들이는 '미술 산책', 작품에 깃든 또 다른 사연을 접할 수 있는 '미술과 음악의 만남' 공연, 대표 작가의 작품 세계를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 등을 준비했다.

첫 일정으로 이달 8일 오후 3시에는 이 전시를 기획, 자문한 김종근 미술평론가를 초청해 '한국미술의 빛나는 작가들'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연다. 김종근 평론가는 기획전에 부친 글에서 "나라를 빼앗긴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과 같은 참혹한 순간에도 붓을 버리지 않고 소중한 가치들을 화폭에 담아냈던 예술가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자리"라고 했다.

전시 관람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은 문을 닫는다. 누보는 '한국미술의 거장'전을 개인전이나 그룹전 형태로 시리즈로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 727-7790.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현장 만난다

갓일 양태 장순자 보유자
이달 4~6일 갓전시관 시연
제주민요는 이달 12일 성읍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갓일' 양태 장순자 보유자. 사진=문화재청 홈페이지

5월 제주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프로그램이 잇따른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로 '갓일'과 '제주민요'를 만날 수 있다.

갓일은 조선시대 성인 남자들이 외출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예복 중의 하나였던 갓을 만드는 과정을 일컫는다. 갓일은 총모자, 양태, 입자로 나뉜다. 총모자는 컵을 뒤집어 놓은 듯한 갓 대우 부분을 말꼬리털이나 목덜미털을 사용해 만든다. 양태는 대나무를 머리카락보다 잘게 쪼개서 레코드판처럼 둥글게 얽어내는 과정을 말한다. 입자는 총모자와 양태를 조립하면서 명주를 입히고 옻칠을 해서 제품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세 가지 과정은 서로 재료가 다르고 솜씨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생산지를 달리하거나 따로 행해지면서 보유자 역시 과정별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갓일 공개 행사는 장순자 양태 보유자가 참여해 5월 4일부터 6일까지 갓전시관(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904)에서 열린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소 인원만 관람 가능하다. 문의 070-8656-6885.

제주민요는 '민요의 보물창고'인 제주 섬의 노동요와 창민요를 아우른다. 농촌에서 불리는 노동요와 더불어 옛 현청 소재지 특유의 가창유희요가 폭넓게 전해지고 있던 성읍 민속마을을 중심으로 불려진 'ᄆᆞ레ᄆᆞ는 소리', '산천초목', '봉지가', '오돌또기' 등이다. 현재는 보유자 없이 보유단체를 인정해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보존회가 전승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민요 공개 행사는 5월 12일 오후 2시부터 성읍마을 내 마방터(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 62)에서 펼쳐진다. 이 공연 역시 최소 인원만 관람할 수 있다. 문의 787-2670. 진선희기자

제주 돌·바람·숲에 피어난 글꽃

이상현 캘리그라피 작가
델문도 뮤지엄 초대 전시
5월 30일까지 '글꽃연가'

이상현의 '숲'.

국내 캘리그라피 1세대 이상현 작가가 제주에서 초대전을 열고 있다. 델문도 뮤지엄(제주시 연삼로 316, 2층)에서 펼쳐지고 있는 '글꽃연가'전이다.

이상현 작가는 전통 서예를 기반으로 1999년부터 디자인과 접목시킨 캘리그라피를 시도하며 글씨에 감성의 옷을 입히고 글꼴에 표정을 만드는 작업을 이어 왔다.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미디어 전시, 뉴욕 타임스퀘어 아리랑퍼포먼스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캘리그라피문화를 알리고 전통서예를 대중예술로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동안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영화 '타짜'의 로고타이틀, 구글(Google)의 한글 로고 제작 등 영화, 드라마, 광고, 각종 제품의 캘리그라피 작업을 맡았다. 대한민국한류대상, 자랑스런 한국인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제주 초대전에는 22년 캘리그라피 이력을 담아 제주의 돌과 바람, 숲 등 웃음꽃 피어난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글씨는 마음이고 예술"이라는 이상현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제주인의 마음속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길 바란다"며 "붓 한 자루로 표현해내는 여유의 쉼표를 여러 대중들과 함께 찍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고 했다.

이달 30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755-0006. 진선희기자

전시 보고 체험하며 해녀문화 가까이

해녀박물관 개관 15주년
5~6월 기념 행사 잇따라
천초 말리는 장면도 공개

제주해녀문화의 보존·전승을 위해 2006년 6월 9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문을 연 제주도립 해녀박물관. 개관 15주년을 맞아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전시, 체험 등 관람객들과 함께하는 기념 행사를 펼친다.

5월 5일부터 6월 말까지는 해녀박물관 야외 광장과 로비에 '해녀박물관, 제주의 색을 입히다'라는 주제로 제주 전통 방식으로 염색한 감물천 20여 점을 전시한다. 이 기간에는 해녀들이 바다에서 직접 수확한 천초(우뭇가사리)를 말리는 모습도 함께 보여줄 예정이다.

이달 15일, 23일, 26일에는 2021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프로그램으로 일영문화유산연구원과 공동으로 해녀박물관 야외 광장에서 '해녀의 기원을 찾아서'를 주제로 해녀의 기원,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강의가 마련된다. 해녀들의 물질 도구인 '빗창' 만들기 체험도 준비됐다. 이달 26일엔 청소년을 대상으로 '숨비소리길'에 흩어진 밭담, 해신당, 불턱 등을 찾는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월부터는 해녀박물관 홈페이지를 이용해 비대면 온라인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온라인 영상엔 해녀들로 이뤄진 하도해녀합창단의 공연 장면이 담긴다.

해녀박물관은 본관과 해녀문화센터로 구성돼 영상실, 전시실, 전망대, 어린이해녀관, 공연장 등을 갖췄다. 박물관 인근엔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이 섰다. 기념탑은 1932년 1월 구좌읍, 성산읍, 우도면 일대에서 벌어진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항일운동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로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해녀들의 2차 집결지인 상도리 연두망 작은 동산에 설치됐다. 진선희기자

문화가 쪽지

두 번째 제주 신화 학교

제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순자)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허정옥)과 함께 6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제주 신화 학교: 일반신 본풀이 2'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에선 차사 본풀이, ᄉᆞ만이(멩감) 본풀이, 지장 본풀이, 세경 본풀이, 문전 본풀이, 칠성 본풀이를 다룬다. 강정식 제주학연구소장, 강소전 제주대 강사, 이현정 제주대 강사, 류진옥 제주학연구소 연구원이 강의한다. 접수는 이달 3일부터 제주평생교육다모아 누리집에서 이뤄진다. 대면 강좌는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온라인 강좌는 인원 제한 없이 접수 받아 접속 주소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의 726-9871.

발달장애인과 '연극 소풍'

상상놀이터(대표 현애란)가 5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운영 예정인 장애인문화예술교육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연극 소풍 룰루랄라 나무' 1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문화곳간 마루에서 펼쳐지는 이번 프로그램은 총 10회차로 기획됐다. 예술가와 1대 1 매칭으로 발달장애인의 감각을 확장시키거나 가족 활동을 진행하며 코로나19로 더욱 소원해진 장애인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게 된다. 2기 프로그램은 9월 초 서귀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 문의는 전화(010-5332-1658)나 이메일(foreveryr123@naver.com)을 이용하면 된다.

경 제27대 김녕중학교 총동창회 임원 취임 축

직전회장 황재필(28회)

회 장/이사장

강태주(29회)

수석부회장 황 재 종(30회)
감 사 김지홍(35회) 김성호(38회)

역대회장단
1대 김민식(1회) 2대 김영준(3회) 3대 한종원(1회)
4대 이익신(1회) 5대 김공빈(3회) 6대 김두전(2회)
7대 양대현(4회) 8대 윤경익(3회) 9대 김형집(1회)
10대 이수익(5회) 11대 고길웅(6회) 12대 한일선(7회)
13대 신종창(8회) 14대 강창하(9회) 15대 이광언(10회)
16대 한봉길(8회) 17대 백근홍(12회) 18대 한상택(13회)
19대 현태송(14회) 20대 윤두호(18회) 21대 오충규(19회)
22대 신대진(20회) 23대 임정봉(22회) 24대 임정봉(22회)
25대 강창협(24회) 26대 황재필(28회)

부 회 장
강상범(29회) 한서근(33회)
박미영(29회) 김재민(34회)
문경희(29회) 김태웅(34회)
김광배(30회) 부동석(34회)
김현숙(30회) 이태훈(34회)
강상흥(30회) 김동언(35회)
신성범(31회) 윤인탁(35회)
문용규(31회) 원동숙(36회)
김삼렬(32회) 박정인(36회)
김영봉(32회) 장용목(37회)
한대영(32회) 한상용(38회)
홍정기(33회)

집행부 임원진

총무부	재무부	장학부	사업부	섭외부	홍보부	여성부	문화부	봉사부	학생부	조직부	체육부
총무부회장	재무부회장	장학부회장	사업부회장	섭외부회장	홍보부회장	여성부회장	문화부회장	봉사부회장	학생부회장	조직부회장	체육부회장
박호형(34회)	김동호(34회)	강도경(35회)	이용숙(36회)	김미애(33회)	원미경(33회)	한영미(32회)	김병철(36회)	신혜경(35회)	신용자(33회)	임용찬(35회)	박진배(34회)
총무이사	재무이사	장학이사	사업이사	섭외이사	홍보이사	여성이사	문화이사	봉사이사	학생이사	조직이사	체육이사
김은숙(39회)	김지선(38회)	김동규(40회)	고은주(38회)	안현철(39회)	정연숙(37회)	김미자(39회)	손정혜(38회)	장기철(37회)	이정미(40회)	강영부(39회)	원경신(40회)
총무부장	재무부장	장학부장	사업부장	섭외부장	홍보부장	여성부장	문화부장	봉사부장	학생부장	조직부장	체육부장
김미영(44회)	한진선(45회)	윤제웅(44회)	김동욱(46회)	김현성(45회)	한창희(44회)	김연희(41회)	박정호(41회)	안경아(46회)	부정숙(42회)	양윤석(45회)	문용식(43회)

회기별 회장단
1회 김민식 2회 김두전 3회 윤경익 4회 한경배 5회 이수익 6회 김인식 7회 이대진 8회 한문준 9회 김영무 10회 현재훈 11회 한경강 12회 백근홍
13회 황철보 14회 한철용 15회 박동근 16회 김경식 17회 신필관 18회 김경윤 19회 김춘식 20회 한치환 21회 안응섭 22회 김봉균 23회 고인구 24회 장동식
25회 한재영 26회 강희찬 27회 윤태갑 28회 김수봉 29회 강상범 30회 강상흥 31회 박경희 32회 강윤석 33회 박재건 34회 양근홍 35회 윤인탁 36회 이상철
37회 양영종 38회 한상용 39회 강영부 40회 부진택 41회 원 현 42회 조명일 43회 설충현 44회 김미영 45회 황문종 46회 김보권 47회 강승필 48회 김형호

연락처 회 장 강태주 ☎010-4693-1818 재무부회장 김동호 ☎010-3935-0915 총무이사 김은숙 ☎010-7799-4599

김녕중학교 총동창회·(재)만장장학회